



CJ 올리브영이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이유



#국내대표커머스 #MAU400만 #개발프로세스

고객사

[고객사 사례] CJ 올리브영이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이유

CJ 올리브영이 안전하고 유연하게 배포를 할 수 있는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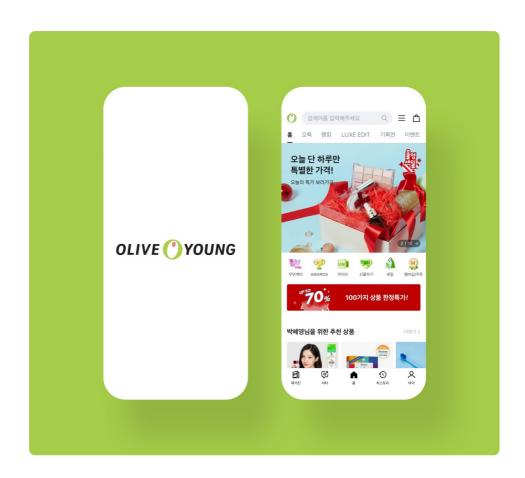
Lydia, Product Marketer

핵클 도입 사례. CJ 올리브영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사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옴니채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CJ 올리브영입니다.



CJ 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채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며 옴니채널 비즈니스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동시 에 온라인 자사몰을 활용한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해 'K-뷰티'를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옴니채널 전략의 허브인 자사몰 운영에 핵클을 도입하여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올리브영의 온라인 자사몰은 MAU가 400만에 달하고, 웹/앱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계 50개 이상 국가에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자사몰 운영에 핵클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을까요?

CJ 올리브영의 핵클 도입 계기

CJ 올리브영 TECH 조직에서는 아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규 코드 배포 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파악하여 신속하게 코드를 롤백 할 수가 없다.

커머스 플랫폼의 특성상 매출의 성장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운영 안정 성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 안정성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 바로 '시스템 장애' 인데요.

신규 코드를 배포 하게 되면 기존 코드와의 충돌, 코드 오류, 특정 버전의 브라우저에 맞지 않는 형식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최초에 코드를 잘 짜는 것만큼 배포할 코드를 미리 테스트하여 장애 발생을 방지하거나, 배포 후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 르게 롤백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CJ 올리브영은 코드 배포 후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하고 즉시 롤백 하기는 어려운 환경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코드 배포가 매우 조심스러웠고, 배포에 소비되는 시간과 리소스가 컸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적시에 유연하게 출시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앞서 설명한 어려움의 연장선상으로 배포 주기에 기능 출시 일정을 맞춰야 하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검증하고 기능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중요 하지만,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과 리소스가 크다보니 고객의 요청에 의한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하거나, 마켓 트렌드에 맞춘 신규 기능을 발빠르게 출시하는 등 시의적절한 기능 출시에는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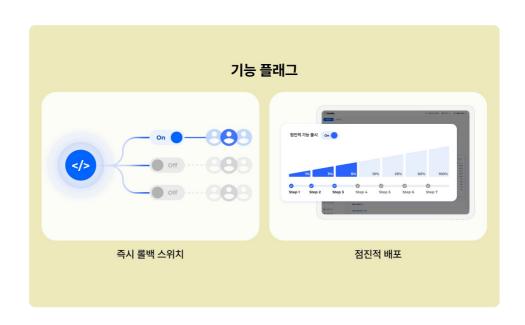
핵클의 솔루션

장애 대응 어려움 개선

기능 배포 후 장애 발생이 두려운 이유는 롤백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 하는데 여러 시간 동안 롤백을 하지 못하면 손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핵클은 기능 플래그 도입을 제안하여 장애 대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즉시 롤백이 가능하게 해주는 스위치인 기능 플래그를 활용하며 CJ 올리 보영은 장애 걱정 없이 유연하고, 안전하게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기능 플래그로 배포와 출시를 분리하고, 0%부터 점진적으로 코드를 배포하며 신규 출시 기능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자 반응 을 확인하며 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맞춤형 CSM 서포트 제공

CJ 올리브영은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영역의 개발팀과 이해 관계자가 존재하고,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중으로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을 고려한 제품 개발이 필요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전파하기 위해 고려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공적인 CJ 올리브영의 온보딩을 위해 핵클팀에서는 개발자 대상 아키텍처 세션, 기획자 대상 PO 세션을 비롯하여 기술 지원을 위한 핫라인 등맞춤형 서포트를 제공함으로써 CJ 올리브영의 빠른 온보딩을 도왔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도입 후 지금까지 핵클을 활용하여 제품 출시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처럼 자신 있게 기능 출시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핵클팀에 문의 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맞춤형 솔루션을 선물해 드립니다. 문의하기

